■ 세월호특별법 '기소권·수사권 포기' 받아낸 새누리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 못준다" 강경

조사위 활동 기간도 이견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피해자 가족과 입장을 같이하며 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으나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지 벌써 3주 가까이 됐으나 여야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8일 현재 나타난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 등 3개로 꼽힌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경우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하는 특검에서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할지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추천한다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여당이 제안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 1년을 활동기간으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연합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진상조사위를 오래 존속시키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특검 활동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최소한 1년을 더해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도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진상조사 부분을 먼저 하고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뒤에 분리 처리하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당장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나 입장차가 커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주례 원내대표 회담은 이날 별도로 잡히지 않았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특별법 서둘러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2층 계단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법 재보선 쟁점화

김한길 "새누리당·靑, 국민뜻 외면 안돼"
윤상현 "특별법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판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고리로 야권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 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 세월호특별법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뒤에서는 '후보 나눠먹기 야합'을 하고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어 "이대로 가면 모든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올 스톱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김영란 법', '유병언 방지법' 등의 시행도 불투명해진다"고 강조한 뒤 "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이냐, 정쟁을 일삼는 새정치연합이냐,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김두관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104일째이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새누리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가 '거짓 약속'이란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성역 없는 진상조사 없이 어떻게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강조하며 "7·30 재·보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한표한표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줘야 집권세력이 정신 번쩍 차리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변화를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7·30 재보선 브리핑

송환기 "광산구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송환기 새누리당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상가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등을 돌며 "광산구가 경제·환경·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주민들을 상대로 "24시간 개방하는 열린도서관을 개설하고, 문화·창작·예술 융복합 지원센터 및 하남산단 이주노동자와 새터민을 위한 다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주요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산구 인구가 약 40만 명이지만, 도시가 꾸준히 팽창하고 있는 만큼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와 협의해 광산교육청은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섭 "세월호 진실 규명, 국민 심판 받아야"

장원섭 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반드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유세를 통해 "지금 세월호 사건에 책임있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큰소리를 치고 망언을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삼복더위에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도보행진을 하고 가족들이 단식을 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무슨 국가개조냐"면서 "국회에 들어가 반드시 세월호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은, 천호선 대표 등 유세 활동 지원 받아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김영미 부대표는 28일 광주를 방문해 문정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천 대표 등은 이날 문정은 후보와 함께 수완지구 등지에서 유세를 펼쳤고, 신가지구 상가와 노점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에게 문정은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기득권에 안주해 어떠한 혁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잘못된 전략공천으로 광주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새로운 야당으로의 교체를 위해 이젠 새정치연합에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정의당과 문정은이라는 선택이 바로 그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구희승 "친환경·생태도시 순천에 동물원 건립"

구희승 무소속 순천·곡성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생태도시 순천에 걸 맞는 친환경, 생태 중심의 놀이시설과 동물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전남 동부권에 놀이시설이나 동물원 하나 없어 광주로, 진주로, 심지어 수도권까지 가야한다"면서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타 지역에서 소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는 "생태환경 '놀이시설 테마파크와 동물원' 건립은 지역의 산업발전과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순천만 정원과 연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1.필사본
2.정가 : 32,000원(택배비 포함)
3.구입문의: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4.불법 복제를 금함

2014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Ⅰ.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3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0명, 대학생 0명)
Ⅱ.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에 한함)
Ⅱ.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에 한함)
Ⅲ.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4. 7. 7(월) ~ 7월 31일(목)
· 최종선정 : 2014. 8월경 발표(2014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4.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Ⅵ.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동구 남동 45번지 2층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Ⅴ.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향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